



전남교육청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브리핑.

청소년 자발적 운영 '미래도전 프로젝트'

전남교육청, 내달 7일까지 접수

전라남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가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2월 7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참가팀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선3기 장석웅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해 원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일정 기간 실행·평가·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역량을 기르는 전남형 학생 중심 체험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협업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는 기존에 운영되던 선상무지개학교, 울곡동일리더스쿨, 히말라야희망학교 등 대규모 프로그램을 대신해 추진된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이 자발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팀 프로젝트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 팀에 3명에서 10명 내외의 학생이 멘토 교사와 함께 진행한다. 오는 2월 7일까지 참가팀 신청을 받아 2월 중 심사를 거쳐 팀이 선정되면 3월 사전워크숍을 통해 계획서를 보완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전남=봉태영 기자 bcy2020@

인천시 '교통량 감소' 우회고가 철거

올 실시설계, 2021년 1단계 철거완료

인천시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인 '우회고가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방안을 단계적 철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회고개교는 당초 내항 물동량의 처리를 위해 설치됐으나 복합, 신항 등 항만 확장 등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개통 등으로 인한 교통패턴 변화로 인해 교통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4~6차로인 우회고개교는 일일교통량 41,000대~61,000대를 처리할 수 있으나, 2017년 10월 기준 일일교통량 17,648대다.

이에 시는 우회고가 정비사업을 개항 창조도시 마중물사업에 반영해 국비를 확보한 후 기본설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전문가 및 코디네이터 자문 회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주민은 철거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시는 실행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교통흐름과 주변의 계획에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우회고가 하부 도로개설 등을 선행한 후, 1단계 구간(길이 626.0m, 4차로)인 중부경찰서 입구부터 우회고가 진출입 램프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2단계 구간(길이 650.0m, 6차로)은 중앙 2차선을 남겨 인천역 뒤 진출입로(총 2차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하부도로와 합친 총 4~6차선의 도로 용량을 확보해 교통흐름에 차질이 없게 할 예정이다. 고가 양측에 남는 각 2차선은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이동식 화분 등을 배치, 시민들의 다양한 실험의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2단계 철거 시까지 활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하부도로개설, 2021년 1단계 철거를 완료할 방침이며, 실시설계 시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량을 파악해 합리적인 설계안을 도출함으로써 상상플랫폼, 1:8 부두 재생사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안산 사동에 '사이언스밸리' 조성

경기도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 안산시·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오늘 협약... 기존개발 단점 해소

경기도가 안산시 사동 일대를 '사이언스밸리'로 조성한다.

경기도는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안산시 사동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일원을 안산사이언스밸리로 지정하기로 하고 18일 경기도청에서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공동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고밀도 연구단지 조성사업이다. 기존 연구개발 특구가 대규모로 진행되

면서 집적·연계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관련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1개만 있더라도 충분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특구로 지정해 작지만 강한 '소규모·고밀도 연구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등 우수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인력 등이 모여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3개 기관은 이날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창업화 지원,

혁신생태계 구축 및 특구 육성을 위한 재원 부담,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로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며,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와 지방세(취득세 100%, 재산세 7년간 100%) 감면이 이뤄진다. 이 밖에 개발행위 관련 30여개 인허가의 일괄 의제 처리, 연구소기업 대상 교통유발금·수도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특구지정으로 최대 1,98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836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465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부울경 단체장 "김해 신공항 백지화해야"

'전면 재검토' 한목소리로 반대 "소음·안전·미래 등 해결 안돼"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한 목소리로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의 백지화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김경호 국회의원(부울경 검증단장), 박재호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등은 지난 16일 오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김해 신공항 관련 '부울경 시도지사·검증단 검증 결과 보고회'에서 검증 결과를 청취하고, 향후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부·울·경 시도지사는 "국토부장관에게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의 백지화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에게 최종 판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울·경 시도지사와 검증단은 향후 국토부장관 및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비롯해 일차



오거돈 부산시장은 김해신공항의 소음, 안전, 미래, 확장성, 군사공항의 한계, 주변 도시계획과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부산시

된 행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800만 부·울·경 국민의 소망이자, 대한민국 백년 지대계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장관과 최종 협의하고,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에 조속히 이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

또한 "김해신공항은 소음, 안전, 미래, 확장성, 군사공항의 한계, 주변 도시계획과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때이다.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제대로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평화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동남권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역할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중·대형 건설현장 15곳 점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등 살펴

광주광역시에는 설을 앞두고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설업 법정사항 이행 상황을 살피기 위해 관내 중·대형 건설현장의 실태를 점검한다.

실태 점검은 24일부터 29일까지 광주시와 자치구,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민·관 건설현장 15곳을 방문한다. 점검반은 근로자 체불임금과 건설기계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대여금 지급 보증 발급, 지역 주민 고용, 지역장비·생산자재의 구매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건설근로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게 임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건설업주에게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설업 운영 시 숙지해야 할 내용도 홍보하는 등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준수 사항을 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활동 광주시, 전문가 60명 위촉

광주지역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등에 대해 자문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2년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에는 건축·토목·전기·통신 등 분야별 특급건설기술자와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60명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새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지난 15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2년이며, 건축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주민을 대신해 세대 내부와 공동주택 외부 공용부분, 주차장시설, 조경 및 부대시설 등 단지 전반에 대해 사용검사 전 구조, 설비, 조경 및 부대시설 등 시공 상태를 점검해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한 시공자문 등을 하게 된다.

공동주택 품질검수 대상은 사업 승인된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150세대 이상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 중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공동주택이다. /광주=봉태영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18일(금)
음력 : 12월 13일

수도권 날씨
-5 ~ 5°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7:45 | 해질 / 17:40

연천 -11/4, 동두천 -9/6, 가평 -10/5, 파주 -12/5, 서울 -5/5, 양평 -10/5, 인천 -4/5, 수원 -5/4, 용인 -5/4, 평택 -8/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